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하자 교통사고 발생 '뚝'

광주지방경찰청, 2주간 735건 단속...단속 기간 교통사고 지난해보다 11.2% 줄어

경찰이 사업용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자 교통사고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사업용자동차를 상대로 고위험·고비난성 법규위반 행위 735건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호위반, 끼어들기, 안전띠 미착용이 70%를 차지했다.

광주경찰청은 선진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문화 형

성에 영향력이 큰 사업용자동차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 동안 단속 취지와 시간, 주요 단속 대상 등을 운전자를 포함해 업체 등에 집중 단속기간을 홍보하고 교통법규 준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단속 활동으로 지난달 22일부터 12일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7건보다

11.2% 줄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행태가 일반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준법·안전 운전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용자동차의 고비난·위험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소금 활용해 침덩굴 제거

영광군 "시범사업 고사율 80.1%"

영광군은 소금을 활용해 침덩굴 제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영광군은 2016년도에 도로변 침덩굴 제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침덩굴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활용해 침덩굴 제거에 나섰다.

지난해 산림청에서 소금처리 침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침덩굴 고사율이 80.1%로 높았으며, 재발률은 2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국도 22호선 도로변 3ha와 물무산, 테마식물원 주변 산림 47ha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에서 생산한 천일염 120포대(20kg기준)를 구입했다.

제거방식은 침덩굴 줄기를 제거한 뒤 뿌리 부분에 50g의 소금을 넣는 방식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 침덩굴 제거를 통해 수목 생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금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주 확진 감소 '뚜렷'...코로나 진정세?

신규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격리 전 검사 '양성' 광주시 "확산 우려 적어"

검찰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던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부터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집단감염이 진정세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 172번(60대 남성), 173번(60대 여성) 확진자로 분류됐다.

남편인 172번 확진자가 배드민턴 동호회회원인 150번 확진자와 광주 북구 두암동 '조록다방'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73번 아내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번 환자는 지난 14일 전남 담양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지역 사회 전파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는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140명, 지난 2월부터 누적환자는 173명으로 늘었다.

광주 확진자 발생추이는 지난달 27일 4명, 28일 4명, 29일 3명, 30일 12명에서 7월1일 22명으로 늘다 증감을 반복했다.

2일 6명, 3일 8명, 4일 16명, 5일 7명, 6일 6명, 7일 8명, 8일 15명, 9일 3명, 10일 9명, 11일 5명, 12일 7명 등이었다.

하지만 13일부터 15일까지는 각 1명, 16일은 2명이 발생하는 등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현재 확진자의 양상을 보면 금양 오피스텔이나 교회쪽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고 있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자가격리 해지 전에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동안 접촉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적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172번과 173번 확진자들처럼 배드민턴 동호회와 연관된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시는 이 부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던 중 해지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게 대부분이다"며 "자가격리 동안 접촉자가 생기지 않아서 더 확산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확진된 2명이 밀폐된 공간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동선이 생겼다"며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검사받는 아동

16일 오전 광주 동구청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차량에 탄 시민과 아이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동구청 보건소는 아동 확진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과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 지난 6일 1차 검사를 실시, 이날 격리 해제 전 2차 검사를 진행했다.(광주동구청 제공)

광주시, 확진자 방문 업소 재개장시 300만원 지원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개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방문이 확인돼 광주 시 홈페이지에 동선이 공개됐다가 완전한

방역조치를 마치고 다시 업소를 재개장한 소상공인들이다.

시는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184곳 중 34곳에 1억200만원(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방역을 마치고 업소를 재개장한 소상공인들은 자신 산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